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수발실태 및 가족수발자의 수발부담

The Status of Caregiving for Frail Older Persons and Family Caregiving Burden

본고는 「2001년 전국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욕구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장기요양보호대상자로 판정된 노인의 수발실태 및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을 수발하고 있는 가족수발자의 제특성, 수발동기, 수발부담 실태를 살펴보고, 그러한 결과가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사회적 보호체계 구축에서 갖는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鄭京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복지팀장

1.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수발실태

장기요양보호대상자로 판정된 노인의 50.9%는 가족수발을 받고 있고, 23.1%는 비가족수발을 받고 있는 반면 26.0%는 전혀 수발을 받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이를 노인의 건강상태별로 살펴보면, 신체적인 장애가 심한 노인의 경우는 거의 모든 노인이 수발을 받고 있으며 수발자는 대부분이 가족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정신적인 장애만 있는 치매노인의 경우는 약 60%만이 수발을 받고 있어 치매노인의 상당수가 적절한 수발을 받고 있지 못함을 볼 수 있다. 한편, 기타로 분류된 노인의 경우도 수발률이 60% 미만이라는 점에서는 치매노인과 유사하지만, 수발을 받는 경우 비가족 수발자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기타로 분류된 노인의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의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금전관리의 경우 금융기관의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신체적 의존도가 높은 경우 가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치매의 경우는 상당 부분 적절한 수발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서, 정신적 장애만 있는 즉, 활동성 치매 노인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요구된다 하겠다.

한편, 노인의 제특성별 수발실태를 살펴본 결과, 여성노인과 독거노인이 수발에 있어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음이 나타났다. 즉, 남자노인의 82.0%가 수발을 받고 있는 데 비하여 여자노인은 71.8%만이 수발을 받고 있으며, 가족 수발률도 남자노인이 67.1%인 데 비하여 46.3%로 매우 낮다. 이는 여자노인의 경우 남자노인과는 달리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높고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독거노인의 경우도 수발률이 매우 낮아 60% 수준이며, 가족수발률이 12.1%에 불과하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 일차적인 정책대상자(target group)는 여자노인과 독거노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제특성별 수발여부

(단위: %)

구 분	가족수발	비가족수발	비수발	계(명) ¹⁾
전체	50.9	23.1	26.0	100.0 (2,287)
성				
남자	67.1	14.9	18.0	100.0 (504)
여자	46.3	25.5	28.3	100.0 (1,783)
가구형태				
노인독신	12.1	49.5	38.4	100.0 (490)
노인부부	52.4	20.7	26.9	100.0 (510)
자녀동거	66.6	12.4	21.1	100.0 (1,166)
기타가구	49.4	30.9	19.8	100.0 (120)
건강상태				
최중증	96.7	3.3	0.0	100.0 (84)
중증	96.3	3.1	0.7	100.0 (162)
경증	89.9	7.4	2.7	100.0 (253)
치매	48.3	11.2	40.6	100.0 (250)
허약	87.5	6.5	6.0	100.0 (299)
기타	25.5	36.8	37.8	100.0 (1,238)

주: 1) 장기요양보호대상 조사가 완료되었는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기초조사에서 장기요양보호대상으로 판정된 2,287명에 관한 분석결과임.

2. 가족수발자의 제특성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보호, 특히 신체적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이 수발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가족수발자는 상당히 고연령층이 많아서 평균연령이 54.7세로 60세 이상이 가장 많아 42.3%이며, 대다수가 여성(74.3%)이고 유배우 상태(84.0%)이다. 한편, 수발자의 대다수가 배우자(35.0%)와 며느리(38.1%)로, 수발의 문제가 여성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딸이 아니라 며느리가 주요 수발자인 것은 일본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가부장적 문화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애정보다는 의무에 기초한 수발이 더 빈번할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수발동기에 있어서도 며느리의 경우 책임감과 가족의 평안함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높고, 사랑때문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가부장적 문화의 약화가 전망되고 있어, 지금과 같은 며느리로부터의 수발이 더 이상 당연시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된다.

수발자의 취업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51.7%가 일을 하고 있으나 그들 중 상당수가 출퇴근 시간이 엄격하지 않은 상태로(농·임·어업 종사자 47.1%, 상용근로자 16.3% 등) 경제활동과 수발을 양립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수발이 수발자의 취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발과 양립할 수 있는 상황일 때만 수발자가 취업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발자의 8.2%는 수발로 인하여 취업을 중단한 경험이, 4.0%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발자의 약 10%정도는 수발로 인하여 자신의 근로기회가 제한받은 경험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수발자의 42.0%만이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며, 10.3%는 자신의 건강이 수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좋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수발자 자신도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수발자의 상당수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수발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인의 신체적 의존도가 높은 경우 가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치매의 경우는 상당 부분 적절한 수발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서 활동성 치매 노인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요구된다.

표 2.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을 수발하는 가족수발자의 제특성

(단위: %)

	특 성	계
성	남자	25.7
	여자	74.3
연령	39세	17.6
	40~49세	22.8
	50~59세	17.3
	60세 이상	42.3
	(평균연령)	(54.7)
건강상태	건강함	42.0
	건강하지는 않지만 수발에 지장 없음	47.7
	수발에 지장 있음	10.3
노인과의 관계	배우자	35.0
	아들	12.3
	며느리	38.1
	딸	8.9
	기타 가족	5.7
경제활동경험 ¹⁾	현재 취업률	51.7
	취업중단 경험률	8.2
	근로시간단축 경험률	4.0
현재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자영자/고용주	38.3
	상용근로자	16.3
	임시·일용근로자	20.9
	무급가족종사자	24.5
현재 취업자의 직종	전문직 사무직	7.7
	판매직	7.9
	서비스직	9.6
	농·임·어업	47.1
	기능직	8.0
	단순노무직/기타	19.7
	계	100.0
	(명)	(1,011)

주: 1) 중복응답임.

3. 가족수발자의 수발동기

제시된 9개의 수발동기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자식으로서의 책임감(91.7%), 노인을 잘 모셔야 가족이 화목해질 것 같아서(80.3%), 내가 힘들더라도 다른 가족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71.6%)이다. 또한 노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와 노인이 불쌍하고 가여워서도 60% 내외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즉, 수발동기로는 책임감 또는 가족성원을 위해서라고 하는 '당위적' 이유에서의 수발이 가장 높고, 다음이 '감정적 유대'에 의한 것이다.

제시된 9개의 수발동기 중 가장 중요한 동기로는 책임감이 가장 높아서 63.1%이며, 다음이 노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으로 11.8%이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7.3%로 다음이다. 즉, 수발자들은 당위성과 감정적 유대감의 혼합된 동기에 의하여 노인을 수발하고 있으나 감정적 유대감보다는 수발에 대한 책임감이 더 큰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재의 수발은 배우자/자녀로서의 '책임감'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지만, 이들은 이미 수발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발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강한 의무감을 갖고 있는 집단이라는 점과, 개인화의 진행과 여성의 취업육구 증대 등의 변화를 생각해 볼 때 향후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과정에서 자녀세대들이 조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수발에 대한 책임감을 유지할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4. 수발부담

수발자들이 느끼는 수발부담은 상당한 수준에 달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Zarit 척도에 의한 22개 항목 중 수발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더 잘 돌봐야 한다는 마음으로 84.7%의 수발자가 이러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더 많이 해드려야 한다는 부담으로 83.4%가 그러한 부담을 경험하고 있다. 즉,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부담, 자신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수발보다 좀 더 잘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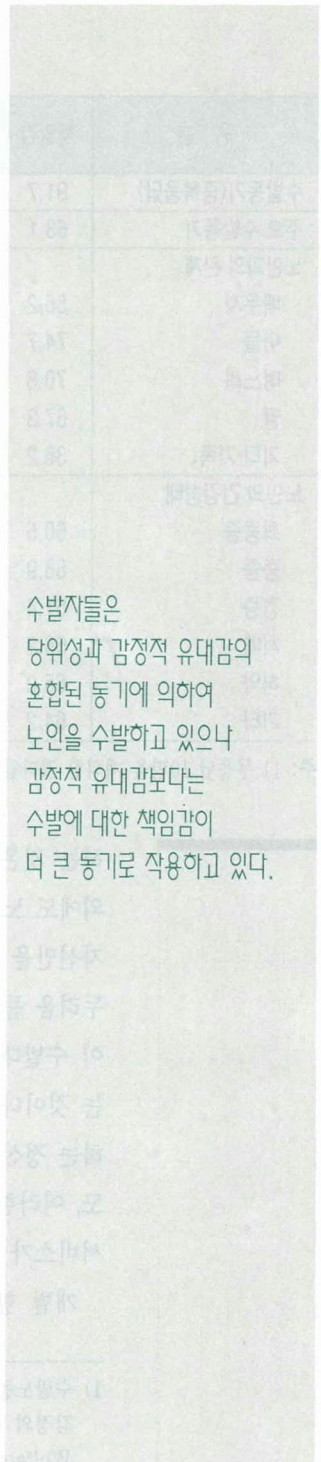


표 3. 제특성별 수발동기

(단위: %)

구 분	책임감	사랑	가족의 화목	불쌍해서	다른 가족의 평안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기타	계(명) ¹⁾
수발동기(중복응답)	91.7	66.0	80.3	65.4	71.6	59.9	-	(1,006)
주요 수발동기	63.1	11.8	5.8	5.3	5.1	7.3	1.7	100.0 (1,001)
노인과의 관계								
배우자	56.2	14.8	6.7	7.8	4.2	8.3	2.1	100.0 (353)
아들	74.7	10.9	1.8	0.8	3.3	4.5	4.0	100.0 (122)
며느리	70.8	6.0	7.1	3.0	7.5	5.2	0.5	100.0 (382)
딸	57.3	20.0	1.1	6.1	4.0	10.4	1.1	100.0 (88)
기타 가족	36.2	22.9	7.5	12.0	0.0	17.5	4.0	100.0 (53)
노인의 건강상태								
최중증	60.5	7.2	1.2	8.9	11.0	10.3	1.0	100.0 (78)
중증	58.9	7.5	4.9	10.4	4.1	11.0	3.3	100.0 (148)
경증	61.4	11.1	5.1	6.2	6.5	8.3	1.4	100.0 (205)
치매	68.2	13.9	8.6	0.0	4.6	4.8	0.0	100.0 (93)
허약	65.0	11.5	6.0	5.1	4.1	6.6	1.8	100.0 (218)
기타	64.2	15.7	7.0	2.6	3.8	5.0	1.8	100.0 (259)

주: 1) 무응답 10명을 제외한 결과임.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데서 오는 부담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노인의 수발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 노인에게 화를 낸 적이 있다는 점, 노인이 자신만을 유일한 수발자로 기대한다는 점, 수발비용의 부담, 노인의 미래상태에 대한 두려움 등이 50% 이상의 수발자가 부담을 느끼는 항목이다. 이러한 결과는 수발부담이 수발대상을 염려하는 것(caring about)에서 발생하는 측면이 매우 큼을 보여주는 것이다¹⁾. 즉, 가족이 수발을 할 경우 육체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수발대상자를 염려하는 정신적·심리적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족이 수발을 담당할 의지가 있더라도, 이러한 가족수발자의 정신적·심리적 수발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서비스가 요구된다 하겠다.

개별 항목의 수발부담도 합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수발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1) 수발노동은 수발대상을 염려하는 것(caring about)과 보살피는 것(caring for)의 두 요소, 즉, 감정의 측면과 실제적인 활동의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음(O'Connor, *From Women in the Welfare State to Gendering Welfare State Regimes*, 1996).

표 4. 항목별 수발부담 정도

(단위: %, 점수)

부담의 종류 ¹⁾	없다 (0점)	가끔 (1점)	때때로 (2점)	자주 (3점)	거의 매일 (4점)	계 (명)	평균 점수
노인의 지나친 수발요구	66.7	20.3	5.0	5.2	2.9	100.0 (997)	0.6
나만의 자유시간 불충분	53.6	19.3	10.1	10.2	6.8	100.0 (994)	1.0
가사일을 못하는 스트레스	53.1	19.7	12.4	6.9	7.8	100.0 (994)	1.0
노인행동의 당황스러움	50.9	25.8	9.4	8.3	5.6	100.0 (994)	0.9
노인에게 화난적 여부	34.2	31.8	15.7	12.1	6.3	100.0 (994)	1.3
내주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75.6	13.0	5.5	3.5	2.4	100.0 (993)	0.4
노인 미래상태 두려움	44.2	21.6	12.0	13.6	8.6	100.0 (993)	1.2
노인의 의존도	23.6	17.1	12.7	20.2	26.4	100.0 (993)	2.1
노인대면시 긴장감	78.6	11.1	4.2	3.9	2.2	100.0 (993)	0.4
수발로 인한 건강악화 여부	71.7	11.3	5.9	7.0	4.1	100.0 (993)	0.6
사생활의 제한	56.0	19.6	9.8	8.3	6.4	100.0 (993)	0.9
사회생활의 제한	66.8	12.4	8.8	5.8	6.3	100.0 (993)	0.7
친구방문시 불편함	67.3	17.7	6.1	5.1	3.8	100.0 (993)	0.6
노인의 유일수발 기대	34.9	17.0	11.5	17.8	18.9	100.0 (993)	1.7
수발비용의 한계	42.5	19.8	10.5	14.4	12.9	100.0 (993)	1.4
수발의 한계성	78.1	11.4	4.0	4.1	2.3	100.0 (993)	0.4
삶에 대한 통제권 상실	72.3	15.0	6.4	4.4	2.0	100.0 (993)	0.5
타인에게 수발양도 희망도	73.8	12.7	6.3	4.0	3.2	100.0 (993)	0.5
어찌해야할지 모를 때	60.1	22.0	9.0	5.6	3.2	100.0 (993)	0.7
더 많이 해드리려는 마음	16.6	30.5	17.5	23.5	11.9	100.0 (994)	1.8
더 잘 돌보아야한다는 마음	15.3	28.4	18.9	24.4	13.0	100.0 (994)	1.9
전반적인 부담	20.9	21.6	8.9	29.4	19.2	100.0 (1,008)	2.0

주: 1) 항목에 따라 무응답 3, 14, 17, 18명을 제외한 결과임.

부담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수발자들이 남성수발자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 현재 취업여부보다는 수발로 인해 경제활동참여가 제한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 여부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즉, 수발을 위해서 취업을 중단하거나 단축한 경험이 있는 수발자는 그렇지 않은 수발자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수발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생활의 제한과 관련된 수발부담은 1.5점과 0.6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에 일을 하다가 수발을 위해 그만둔 수발자들은 자신의 희생에 대한 불만과 실제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수발관련 상황 때문에 수발부담도가 매우

수발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담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수발자들이 남성수발자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

표 5. 수발자의 제특성별 항목별 수발부담 정도

(단위: 점수)

부담의 종류	전체	연 령					성		취업유무		취업중단/ 단축 경험	
		29세 이하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 이상	남자	여자	비취업	취업	없음	있음
노인의 지나친 수발요구	0.6	0.3	0.5	0.6	0.7	0.6	0.4	0.7	0.6	0.6	0.6	0.7
나만의 자유시간 불충분	1.0	0.8	0.8	0.8	1.2	1.1	0.6	1.1	1.1	0.8	0.9	1.9
가사일을 못하는 스트레스	1.0	0.7	1.0	0.9	1.1	1.0	0.6	1.1	1.0	0.9	0.9	1.5
노인행동의 당황스러움	0.9	0.5	0.9	1.0	1.1	0.9	0.5	1.1	1.1	0.8	0.9	1.2
노인에게 화난적 여부	1.3	0.8	1.2	1.2	1.4	1.3	0.7	1.4	1.4	1.2	1.2	1.6
내주변과 부정적인 영향	0.4	0.3	0.5	0.4	0.7	0.4	0.2	0.5	0.5	0.4	0.4	0.6
노인 미래상태 두려움	1.2	0.9	1.0	1.1	1.3	1.3	0.9	1.3	1.2	1.2	1.2	1.4
노인의 의존도	2.1	1.2	1.6	1.9	2.4	2.4	1.9	2.2	2.2	2.0	2.0	2.6
노인대면시 긴장감	0.4	0.2	0.4	0.4	0.5	0.4	0.1	0.5	0.5	0.3	0.4	0.5
수발로 인한 건강악화 여부	0.6	0.2	0.4	0.4	0.7	0.8	0.2	0.7	0.8	0.4	0.6	1.0
사생활의 제한	0.9	0.7	1.0	0.8	1.0	0.9	0.5	1.0	1.1	0.7	0.8	1.4
사회생활의 제한	0.7	0.6	0.8	0.7	0.9	0.7	0.4	0.9	0.8	0.7	0.6	1.5
친구방문시 불편함	0.6	0.7	0.9	0.7	0.8	0.4	0.3	0.7	0.7	0.5	0.6	0.9
노인의 유일수발 기대	1.7	0.9	1.1	1.5	2.0	1.9	1.4	1.8	1.7	1.7	1.6	2.1
수발비용의 한계	1.4	0.8	1.1	1.2	1.4	1.6	1.2	1.4	1.5	1.2	1.3	1.8
수발의 한계성	0.4	0.3	0.4	0.2	0.5	0.5	0.2	0.5	0.5	0.3	0.4	0.6
삶에 대한 통제권 상실	0.5	0.3	0.6	0.3	0.7	0.5	0.3	0.6	0.6	0.4	0.5	0.8
타인에게 수발양도 희망도	0.5	0.5	0.7	0.5	0.7	0.4	0.3	0.6	0.6	0.4	0.5	0.6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0.7	0.6	0.7	0.7	0.9	0.6	0.4	0.8	0.8	0.6	0.7	1.0
더 많이 해드리려는 마음	1.8	2.2	2.0	1.9	1.8	1.8	1.8	1.8	1.9	1.8	1.8	2.1
더 잘 돌보아야한다는 마음	1.9	2.1	2.1	2.0	1.8	1.8	1.9	1.9	1.9	1.9	1.9	2.2
전반적인 부담	2.0	1.2	2.0	1.9	2.2	2.2	1.5	2.2	2.2	1.9	2.0	2.7
합계 ¹⁾ (명)	22.6 (994)	16.6 (55)	21.4 (123)	21.3 (227)	25.6 (173)	23.1 (416)	16.2 (257)	24.8 (737)	24.7 (477)	20.6 (517)	21.6 (879)	30.4 (115)

주: 1) 합계의 경우 22개 항목 중 1항목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17명은 제외한 결과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발자가 노인의 배우자(23.0점), 며느리(24.1점), 딸(25.0점)인 경우가 아들(17.0점)이나 기타 가족(18.3점)인 경우보다 수발자가 수발대상 수발부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발자가 노인의 배우자인 경우는 특히 자신을 유일한 수발자로 기대하는 데서 발생하는 부담이 매우 높는데, 이는 노인의 의존도에서 발생하는 수발부담도가 높다는 점과 함께 생각해 볼 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에 전적으로 의존하려는

성향을 가지며 이는 배우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노인의 배우자는 대부분 연령이 많다는 점에서 수발로 인한 자신의 건강악화 또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며느리의 경우는 다른 수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발부담도가 높고, 특히 노인행동에서 경험하는 당황스러움, 수발자 주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에서 높은 수발부담을 느끼고 있다.

노인의 건강상태 또한 수발부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최종증 노인의 경우 가장 수발부담도가 높아 22개 항목중 10개 항목의 점수가

노인의 배우자는 대부분 연령이 많다는 점에서 수발로 인한 자신의 건강악화 또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6. 노인과의 동거여부 및 관계별 항목별 수발부담 정도

(단위: 점수)

부담의 종류	전체	노인과의 관계					노인의 건강상태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기타 가족	최중증	중증	경증	치매	허약	기타
노인의 지나친 수발요구	0.6	0.6	0.4	0.6	0.6	0.4	1.2	1.1	0.7	0.4	0.4	0.2
나만의 자유시간 불충분	1.0	1.0	0.7	1.1	1.1	0.7	2.3	1.9	1.1	0.5	0.8	0.3
가사일을 못하는 스트레스	1.0	0.9	0.7	1.1	1.1	0.8	2.0	1.7	1.2	0.5	0.8	0.4
노인행동의 당황스러움	0.9	0.9	0.5	1.2	0.8	0.7	1.6	1.5	1.1	0.6	0.8	0.4
노인에게 화난적 여부	1.3	1.3	0.7	1.4	1.2	1.0	2.1	1.8	1.5	0.9	1.1	0.7
내주변과 부정적인 영향	0.4	0.4	0.2	0.6	0.5	0.4	1.1	0.8	0.6	0.2	0.3	0.1
노인 미래상태 두려움	1.2	1.4	0.9	1.2	1.3	1.2	1.2	1.7	1.4	1.0	1.4	0.7
노인의 의존도	2.1	2.2	1.9	2.1	2.3	1.3	3.1	2.7	2.4	1.9	2.0	1.3
노인대면시 긴장감	0.4	0.4	0.1	0.6	0.4	0.4	0.7	0.6	0.5	0.2	0.5	0.2
수발로 인한 건강악화 여부	0.6	0.9	0.1	0.6	0.6	0.1	1.7	1.1	0.8	0.2	0.4	0.2
사생활의 제한	0.9	0.8	0.6	1.1	0.9	0.7	2.1	1.6	1.0	0.4	0.8	0.4
사회생활의 제한	0.7	0.6	0.4	0.9	1.0	0.5	1.9	1.3	0.9	0.4	0.5	0.3
친구방문시 불편함	0.6	0.4	0.4	0.9	0.5	0.5	1.2	0.9	0.7	0.4	0.6	0.3
노인의 유일수발 기대	1.7	1.9	1.4	1.7	1.6	1.1	2.6	2.4	1.9	1.3	1.6	1.1
수발비용의 한계	1.4	1.7	1.2	1.1	1.5	1.0	2.3	1.9	1.5	0.9	1.3	0.9
수발의 한계성	0.4	0.5	0.2	0.4	0.5	0.5	1.1	0.8	0.5	0.2	0.4	0.1
삶에 대한 통제권 상실	0.5	0.5	0.3	0.6	0.5	0.3	1.4	1.0	0.6	0.2	0.3	0.1
타인에게 수발양도 희망도	0.5	0.3	0.4	0.7	0.7	0.7	1.1	0.8	0.5	0.3	0.5	0.3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0.7	0.6	0.4	0.8	0.8	0.8	1.4	1.1	0.8	0.5	0.6	0.4
더 많이 해드리려는 마음	1.8	1.7	2.0	1.8	2.4	1.9	2.1	2.0	1.9	1.6	1.8	1.7
더 잘 돌보아한다는 마음	1.9	1.8	2.2	1.9	2.5	1.9	2.1	2.2	2.0	1.8	1.9	1.8
전반적인 부담	2.0	2.1	1.5	2.2	2.1	1.5	3.4	2.9	2.4	1.6	1.9	1.1
합계 (명) ¹⁾	22.6 (994)	23.0 (347)	17.0 (120)	24.1 (381)	25.0 (89)	18.3 (54)	39.4 (75)	33.3 (149)	25.8 (200)	15.7 (95)	20.7 (216)	12.9 (259)

주: 1) 합계의 경우 22개 항목 중 1항목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17명을 제외한 결과임.

2.0을 넘고 있으며, 전반적인 부담과 노인이 수발자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가장 높아서 각각 3.4점과 3.1점을 기록하고 있다.

노인의 건강상태별로 총수발부담 점수를 비교해 보면, 노인의 신체적인 의존도가 낮을수록 수발부담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최종증 노인의 경우가 39.4점으로 수발부담의 정도가 가장 높고, 기타의 경우가 12.9점으로 약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편, 수발자의 대부분인 70.9%가 수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발자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는 것으로 40.4%이며, 다음은 수발비용 부담으로 18.8%, 사생활의 제한 13.5%, 건강악화 12.7%의 순서로 나타났다. 수발비용으로 인한 부담의 경우 실제 수발비용을 살펴보면 10만원 이상의 수발비용이 지출되는 경우가 23.1%에 달하고 있는데, 월평균 가구소득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10만원 이상의 수발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18.4%나 되고 있으며, 20~30만원 미만이 소요되는 경우가 3.3%, 30만원 이상의 수발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2.2%나 되고 있어 수발비용의 가계부담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수발자가 지적한 수발상의 어려운 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지역의 수발자가 수발상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아 83.0%에 달하고 있다. 이는 읍·면부지역의 57.1%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어려움의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어, 읍·면부지역의 수발자는 동부지역의 수발자에 비하여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수발비용 부담, 자신의 건강악화 등의 경험률이 높은 반면, 동부지역의 수발자는 사생활 제한의 경험률이 읍·면부지역 수발자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수발자에 비하여 여자수발자가 수발상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아 여자수발자의 경우 77.5%이며, 남자수발자의 경우는 51.8%이다. 어려움의 내용을 보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남자수발자의 경우가 49.7%로 여자수발자의 38.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수발비용부담도 남자수발자의 경우 21.1%로 여자수발자의 18.3%보다 약간 높다. 반면 여자수발자의 경우는 15.0%가 자신의 건강악화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남자수발자의 3.0%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사생활의 제한을 지적한 비율도 여자의 경우 14.2%로 남자의 10.7%에 비하여 높아서, 많은 여자수발자들이 자신의 건강 및 사생활을 희생하면서 수발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수발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수발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

표 7. 수발자의 제특성별 수발상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특 성	(대상자수) ¹⁾	있음	어려운 점								
			사생활의 제한	사회생활의 제한	건강 악화	계속적인 관심 필요	수발비용 부담	가족원의 비협조	가족생활에 부정적 영향	기타	계
전체	(1,007)	70.9	13.5	6.5	12.7	40.4	18.8	2.7	3.5	1.9	100.0
지역											
동부	(537)	83.0	15.2	6.7	11.0	39.8	17.8	2.6	5.3	1.6	100.0
읍면부	(470)	57.1	10.7	6.0	15.5	41.5	20.6	3.0	0.4	2.3	100.0
성											
남자	(260)	51.8	10.7	6.7	3.0	49.7	21.1	2.4	5.0	1.5	100.0
여자	(748)	77.5	14.2	6.4	15.0	38.3	18.3	2.8	3.1	2.0	100.0
연령											
29세 이하	(54)	51.9	31.7	11.5	5.4	34.4	9.4	3.8	0.0	3.8	100.0
30~39세	(126)	75.8	21.6	12.7	5.7	40.9	10.0	3.5	4.8	0.9	100.0
40~49세	(225)	70.8	14.5	5.4	4.4	51.2	13.2	3.3	4.5	3.4	100.0
50~59세	(176)	75.7	8.7	7.4	11.5	47.8	13.9	2.9	4.8	3.1	100.0
60세 이상	(427)	70.0	10.8	4.2	20.6	31.9	27.7	2.0	2.2	0.7	100.0
가구소득											
30만원 미만	(159)	70.1	8.2	5.7	16.8	23.3	40.9	3.0	1.3	0.9	100.0
30~70만원 미만	(256)	66.6	9.4	5.4	16.9	38.2	26.5	2.4	0.0	1.3	100.0
70~110만원 미만	(197)	70.4	13.4	6.4	12.2	42.7	15.5	3.2	3.8	2.7	100.0
110~210만원 미만	(290)	74.5	14.9	7.6	9.1	48.7	8.9	2.4	6.3	2.2	100.0
210만원 이상	(78)	75.4	33.1	8.9	8.2	41.7	0.0	1.8	4.7	1.6	100.0
취업유무											
비취업	(487)	77.8	18.3	4.4	14.6	34.3	18.7	3.3	4.3	2.0	100.0
취업	(521)	64.4	8.1	8.7	10.5	47.3	19.0	2.1	2.5	1.8	100.0
취업중단/단축경험											
없음	(894)	68.2	14.0	4.9	12.5	41.5	18.9	2.8	3.6	1.9	100.0
있음	(113)	92.3	10.7	15.7	14.0	34.4	18.5	2.1	2.7	1.9	100.0
건강상태											
건강함	(424)	64.5	15.8	8.2	2.0	50.9	12.1	2.8	5.8	2.3	100.0
건강하지는 않지만 수발에는 지장 없음	(479)	72.3	12.8	5.9	14.2	38.7	21.6	2.8	2.6	1.5	100.0
수발에 지장 있음	(104)	90.6	8.5	3.6	38.5	16.8	28.2	2.2	0.0	2.2	100.0
노인과의 관계											
배우자	(353)	68.5	9.0	3.0	20.6	29.7	33.6	2.1	1.2	0.8	100.0
아들	(124)	58.1	11.2	6.4	0.0	54.3	14.4	3.0	9.3	1.5	100.0
며느리	(385)	76.0	17.4	7.8	10.5	44.6	9.9	3.5	4.4	1.9	100.0
딸	(88)	78.6	11.6	10.2	12.4	44.7	14.4	2.8	1.3	2.6	100.0
기타 가족	(55)	67.0	20.6	5.8	4.7	45.3	10.8	0.0	4.1	8.8	100.0
노인의 건강상태											
최중증	(79)	98.7	12.4	9.0	28.1	25.1	16.5	1.1	5.2	2.7	100.0
중증	(149)	92.2	9.5	7.7	14.0	36.8	23.6	2.8	2.7	2.9	100.0
경증	(206)	83.5	12.5	9.1	11.1	40.6	19.9	2.9	3.4	0.6	100.0
치매	(94)	55.7	19.0	4.2	5.4	45.7	20.7	1.7	1.9	1.5	100.0
허약	(219)	72.9	14.3	3.1	14.5	38.6	17.6	3.8	5.1	3.0	100.0

주: 1) 무응답 4명을 제외한 결과임.

이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어려움은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29세 미만의 젊은 수발자들은 그에 못지 않은 비율로 사생활의 제한을 지적하고 있다. 즉,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는 수발로 인해 본인의 사생활이 제한 받는 것에 의한 어려움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크게 느껴지는 것이다.

한편, 가구소득별로 보면 가구소득이 30~70만원 미만인 경우만 어려움의 경험률이 70% 미만이며, 가구소득이 110만원 이상인 경우는 그 비율이 75%를 넘고 있다. 어려움의 내용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는 수발비용부담이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어 30만원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진 수발자의 경우 40.9%에 달하고 있다. 반면, 가구소득이 110만원을 넘는 경우는 수발비용 부담보다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어려움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 가구소득이 210만원 이상인 수발자의 경우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과 비슷한 비율로 사생활의 제한을 어려운 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수발자의 취업상태에 따른 수발상 가장 어려운 점을 살펴보면 현재 비취업중인 수발자가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77.8%로 취업자의 64.4%보다 높고, 수발 때문에 취업을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험이 있는 수발자는 92.3%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취업자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 외에도 수발비용의 부담, 사생활의 제한, 건강악화 등의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취업하고 있는 수발자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47.3%로 비취업 수발자의 34.3%보다 월등히 높고, 수발비용의 부담을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다.

수발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수발상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으며 수발상 어려운 점으로도 자신의 건강악화를 지적하고 있다. 자신의 건강이 수발을 하기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건강상태인 수발자의 경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보다는 자신의 건강악화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그 비율도 35%를 넘는 수준이다.

한편, 수발자가 배우자인 경우는 20.6%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신의 건강악화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노인의 배우자는 대부분 연령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이 악화된다는 것을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수발비용부담을 다른 수발자에 비하여 크게 느끼고 있어 그 비율이 33.6%로 다른 수발자의 10% 내외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최중증 상태의 노인을 수발하는 경우 대부분의 수발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

신의 건강악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사생활의 제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수발자가 느끼는 부담도가 상당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수발자의 대부분인 93.0%가 지금부터 5년 이상 수발을 지속할 수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수발자가 느끼는 부담이 표출된 것이라기보다는 '숨어있는' 것임을 볼 수 있다.

5. 정책적 시사점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수발에 있어서 가족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수발자는 여성으로 수발노동의 여성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자노인과 독거노인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장기요양보호정책의 일차적인 정책대상자(target group)가 되어야 하며, 가족수발자가 경험하는 수발부담은 상당한 수준으로 육체적·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 볼 때 장기요양보호 서비스기관의 확대와 그에 따른 인력 및 재정 확보²⁾ 와 서비스 대상 선정에 있어서 여성노인과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이 외에도 수발자를 위한 수당제도의 도입, 수발을 위한 가족간호휴가제도의 마련, 가족수발자를 위한 서비스의 개발 등이 요구된다.

1) 가족수발자를 위한 수당제도의 도입 검토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수발하는 데 따르는 수발보호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는 수발수당의 도입이 요구된다. 수발수당제도는 노인 또는 수발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노인에게 직접적으로 지불하는 방식은 노인에게 장기요양보호서비스 구입에 대한 결정권을 부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수발은 가족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수발자는 여성이며 여자노인과 독거노인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장기요양보호정책의 일차적인 정책대상자가 되어야 한다.

2) 이와 관련해서는 본호에 실려있는 석재은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대상 노인을 위한 시설 및 인력 확충 규모』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음.

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수는 있으나, 선진국의 경험에 의하면 그러한 지원 방식은 수발자의 욕구와 관심사를 거의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가족수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제도의 도입은 아직도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책임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가족들이 수행하여 온 부양노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수발자에게 수발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³⁾.

2) 가족간호휴가제도의 도입


여성이 대부분인 가족 수발자가 수발로 인하여 경제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수발자의 수발휴가제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수발 때문에 경제활동을 그만두거나 단축한 경우가 10% 정도에 달하고 있고, 현재 수발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수발자의 대부분이 비교적 근무시간이 많지 않거나 유연한 근무여건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본 조사결과가 의존적인 가족성원을 돌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족간호휴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고 있는 가족보호휴가제도를 개선·확대시킴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장기요양노인의 수발근로자를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여성이 담당해온 보호노동(caring work)은 크게 아동의 양육과 부상,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가족구성원(자녀, 배우자, 부모 등)을 간호하는 것으로 구분되는데, 전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고령자의 보호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가족간호휴직제가 육아휴직이나 아동보육제도에 못지 않은 정책적 중요성을 갖는다 하겠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육아휴직제가 정립된 후에 가족간호휴가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3) Twigg는 *Issues in Informal Care*(1996)에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과 수발하는 가족 수발자를 위한 정책은 국가에 미치는 비용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발자와 수발을 받고 있는 노인을 위한 정책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즉, 특정 정책이 얼마나 비용효과적인가 하는 도구적 관점뿐만 아니라 수발자와 수발대상자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임. 이는 수발 자체가 수발자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가족수발자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그만 둘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항상 수발자의 욕구와 수발대상자의 욕구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데 그 근거를 두고 있음.

육아휴직제와 가족간호휴가제가 보호노동의 사회화라는 틀 속에서 동시에 검토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가족수발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비공식 보호에 관한 각종 문헌은 다양한 서비스프로그램이 가족수발자의 수발에 따른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수발보호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본 조사에서도 가족수발자는 수발가족에 대한 경제적 보조와 더불어 수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제공과, 수발방법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어르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및 상담,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을 언급하고 있어서 수발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다. 

여성이 대부분인 가족 수발자가 수발로 인하여 경제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수발자의 수발휴가제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